

통신업	2	3,600	1	1,800
숙박음식점업	5	13,335	4	6,733
부동산 및 서비스업	0	0	0	0
합 계	57	448,430	49	253,631

(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, KOTRA)

(문의처 : 타슈켄트무역관 권태진 tashkent@kotra.or.kr)

아시아, 대양주지역

■ 필리핀 경제, 위기로 갈 것인가, 회복될 것인가?

- 필리핀 정부가 재정적자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‘중기개발계획’을 발표한 가운데, 필리핀 경제가 앞으로 2~3 년 내에 위기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함.
-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‘2004~2010 년 중기개발계획’에 따르면 2010 년까지 7 년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7%대에 이를 것이며, 수출은 지난해 378 억불에서 2006 년에는 523 억불, 2009 년에는 743 억불, 2010 년에 가서는 843 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재정적자는 금년 목표 1,978 억 페소(약 35 억불) 적자에서 2010 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,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빈곤가구수를 현재의 27%에서 20%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.
- 정부는 이 중기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기존 세율의 인상과 통신업계에 대한 영업세 도입 등의 안건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음. 정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817 억 페소(약 14.6 억불)의 추가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임.
- 그러나 정부의 세수확대안에 대해서는 재계뿐만 아니라 일부 정계인사들도 반대하고 있음.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외채와 이자부담으로 지출예산은 묶여있는데 부정부패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. 소득세 징수도 잘 되지 않고 밀수 등 수입관세도 잘 걷히지 않으며 부가세는 30% 정도만 징수되는 것으로 알려짐. 지난해 담세율은 14.6%에 불과. 따라서 세수확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조치가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- 필리핀대학 경제학자 등은 지난 8 월,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조치가 긴급히 취해지지 않는다면 2-3 년 내에 재정파탄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, 이번 중기계획도 결함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. 공기업의 신규 창설 등이나 중소기업 대출확대 등 중기계획의 구성요소들 자체가 장래에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, 계획과 실행간의 괴리가 너무 크고, 투자조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점, 인구증가억제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.
- 무역산업부장관은 중기개발계획은 추정치이자 계획이므로, 계획에 대해 왈가왈부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일축했음.
- 7 년간 평균 7%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음.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이자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외채이자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.
- 현재 필리핀은 재정적자가 한계에 달한 상태로, 재정지출의 20%를 상회하는 금액이 매년 적자로 운영되며, 외채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매년 새로 외채를 얻어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음.
- 2003 년의 경우 재정지출의 24%인 37 억 달러가 적자였고, 외채이자상환액은 재정지출의 27%인 42 억 달러나 되었음. 금년도 외채이자상환 비중은 33.3%로 예상되며, 2005 년에는 전력공사(Napocor) 부채의 인수로 36%가 될 전망이다. 또한 폐소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폐소화가 10% 평가절하 되면 이 비중은 37%로 늘어날 것으로 중앙은행은 전망하고 있음.
- 필리핀 중앙은행, 국제신용평가기관들 및 외국계 은행들도 필리핀이 세수확대 조치들을 도입하여 재정적자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가신용도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. 이 경우 폐소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외채 및 이자상환 부담은 반비례하여 높아지게 됨.
- 따라서 어떻게든 세수확대조치가 도입되어야만 파국을 면할 수 있는데, 아로요 정부가 정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.

(문의처 : 마닐라무역관 정은주 ejchung@kotra.or.kr)